

영광군, 서해랑길 홍보 팸투어 실시

여행작가 등 20명 초청 1박2일간 주요 관광지 둘러봐 “걷기 여행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매력 널리 알릴 것”



영광군은 지난 10월28일부터 10월29일까지 코리아트레킹 중 서해랑길 홍보를 위해 여행작가 등 20명을 초청해 팸투어를 실시했다. 참가자들은 1박 2일간 서해랑길 39코스와 40코스를 걸으며 영광군 주요 관광지를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다.

서해랑길 영광 39코스는 노을이 환상적인 백수해안도로에서 영광대교를 지나 백제불교최초도래지로 이어지는 아름다운 길로 영광의 주요 관광지를 지나는 서해랑길의 대표 코스이다. 참가자들은 첫 날 서해랑길 39코스를 걸은

후 서해랑 영광 쉼터(삼미랑 어촌문화체험관)에 들러 「두루누리」 어플 인증을 통해 차 한잔을 무료로 제공받았다. 현재 서해랑 영광 쉼터에서는 서해랑길 영광 코스(36코스~40코스) 중 1개 코스 완보자를 대상으로 무료로 차마시GO) 이벤트를 진행중이다.

서해랑길 39코스 트레킹 후 간다라 불교 문화의 예술을 고스란히 간직한 백제불교최초도래지를 둘러봤다.

이튿날은 서해랑길 40코스 걷기 후 천년고찰 불갑사로 전통여행을 떠났다. 천년의 역사와 문화가 숨쉬는 불갑사관광지는 유서 깊은 불교문화의 역사와 수려한 자연경관을 간직한 관광명소이다.

참가자들은 팸투어 참여 후 3일 이내 개인 SNS를 통해 서해랑길 걷기 여행을 홍보할 예정이다. 참가자 중 한 명은 “바다 옆 서해랑길을 걸으며 시원한 바람과 눈 앞에 펼쳐지는 탁 트인 바다를 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걷기 여행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매력을 널리 알리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영광군 관계자는 “서해랑길 영광 코스는 총 5개 코스로 영광군의 아름다움을 가장 가까이서 느낄 수 있는 길이다”며, “올 가을 영광으로 오셔서 소중한 추억 만드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영광=서희권기자



함평군, 산불대책본부 운영...가을철 산불방지 '총력'

함평군이 가을철 산불 방지를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섰다.

함평군은 “가을철 건조한 날씨로 산불 발생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세우고, 오는 12월 15일까지 산불대책본부를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앞서 군은 지난달 31일 산불진화대 발대식을 갖고, 산불 발생시 신속한 초기 진화를 위해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28명을 대상으로 안전 및 진화교육을 실시했다. 군은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을 산불 발생 취

약지에 분산 배치해 산림 인접지 소각행위, 화기 및 인화물질 소지자 입산 금지 등 산불 예방 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산림 인접지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소각을 집중 계도·단속하고, 불법 소각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소중한 산림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산불 예방 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군민들께서도 산불예방에 대한 많은 관심과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함평=김광춘기자

신안군, 깨끗하고 쾌적한 이동화장실 시설 개선사업 추진

보행약자 배려해 계단식 → 경사식 보행로 개선

신안군은 UNWTO의 제1회 세계 최우수 관광마을로 선정된 퍼플섬 등 1004섬 신안을 찾는 관광객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관광지 주변에 설치된 이동화장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하였다.

최근 완료된 하의도 큰바위열굴 주차장 화장실은 출입문을 투명유리와 불투명 카트리지를 혼용 사용하여 성범죄 및 각종 사고 예방에 중점을 두었으며,

특히, 이동화장실에 보행약자를 배려하여 보행로를 계단식에서 경사식으로 개선하는 등 섬세함을 기하였다.

신안군에서는 현재 134개소 공중화장실을 운영 중에 있으며 성범죄 예방을 위한 안심화장실 52개소 등 시설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앞으로도 화장실을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깨끗하고 쾌적



한 이동화장실 이용문화 정착에 함께 해주실 것”을 당부했다.

신안=이덕주기자

목포시, 문화예술행사 잠정 연기·취소

목포시가 지난 10월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애도하기 위해 개최 예정이었던 문화예술행사를 잠정 연기 또는 취소한다.

이에 따라 당초 오는 3월 예정이었던 목포시립교향악단 정기연주회는 잠정 연기한다. 매주 금·토요일 평화광장, 노을공원, 근대역사관 1관, 삼학도 항구포차 등 4개소에서 진행한 ‘목

포항구 버스킹’ 행사도 오는 5일까지 취소한다.

시는 정부가 오는 5일까지를 국가예도기간으로 지정함에 따라 통장한마음어울림대회·목포해상W쇼(이상 11월 5일), 부흥동 어울마당축제(11월 4일) 등도 연기 또는 취소했다.

목포=기동취재본부

영암군, 2022 영암읍 도시재생대학 제3기 개강

영암군은 11월 5일 오후 2시부터 영암읍 도시재생대학 제3기 과정을 개강한다.

도시재생대학은 주민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하는 참여형 도시재생 사업을 위한 교육과정으로 2020년, 2021년을 통해 52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2022년 도시재생대학 3기 과정은 오리엔테이션 및 전남 SOS 리빙랩, 선진사례 현장답사, 도시재생 연계 및 협업사업, 로컬의 재발견 그리고 상상 등 기본강의 3회, 지역 현안 토의 2회, 현장답사 1회로 구성되며, 오는 12월 10일까지 매주 토요일 영암읍사무소 2층 회의실에



서 총 6주간 수강생 30명 내외로 운영될 계획이다.

영암=조대호기자

무안군, 상수도 배수지 환경정비 및 안전점검 실시

무안군은 군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11월1일부터 2개월간 상수도 배수지 환경정비와 시설물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배수지는 정수장을 거친 수돗물을 일정 수량·수압 등을 유지하며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설치된 시설물로, 무안군은 무안배수지를 포함해 9개소를 관리하고 있다.

군은 9개소 배수지를 대상으로 저수조 내부 물때와 바닥 침전물을 제거하고 배수지 내 시설물 점검 등 환경정비를 할 예정이며, 청소로 인한 군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 배수지

별 순차적 진행으로 단수 없는 점검을 추진한다.

또한 배수지 시설물의 누수·부실·균열 여부와 시설물 주변 옹벽·사면 등의 보호 상태를 확인하고 긴급 보수가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즉시 보수 조치해 군민 불편을 사전에 예방할 방침이다.

무안=이기성기자

아세요?
한수원이 요즘 바뀐 이유

온실가스를 없애고
미세먼지는 줄이고
기후변화까지 막는
지구를 살리는 바른 에너지를
세계 곳곳에서 만들고 있거든요

**한수원은 지금
바른 에너지 개발로 열일 중**

한국수력원자력주